

음무~ 소리 가득한 초원... 가을 추억 만든다

울주 신우목장 체험



하늘과 맞닿은 푸른 초원 위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떼... 저 어~기 강원도 대관령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목가적인 풍경을 경남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다. 믿을 수 없다고?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번 주말엔 목장길 따라 가을을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 초원을 뛰며, 소 울음소리를 들으며, 비닐 일상 따위일랑 잠시 잊는게다. 게다가 높은 가을 하늘까지 보낸다면 마치 알프스 어느 산자락에 온 듯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다. 오는 11월말까지 가을철 목장 체험 프로그램까지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줄 수 있다. 서두르자, 이미 주말 예약이 팍팍 차고 있다고 한다.

목장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에서 내려 35번 국도를 타고 언양 시내를 통과한다. 언양을 지나 자동차로 10여분 정도 35번 국도를 따라가다 전읍마을 표지판에서 좌회전한다. 작은 삼거리 초행길이라면 다소 찾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라면 우선 35번 국도를 타고 가면서 오른쪽 전방 '황우쌀 정미소'가 나타나는 것을 유심히 살펴라. 규모가 작지 않아 쉽게 눈에 띈다. 정미소를 지나 1분을 채 못 가 작은 삼거리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전읍마을로 들어가는 길. 좌회전 신호등 옆으로 '전읍마을' 표지판이 함께 붙어있다. 이후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조금만 올라가면 왼편으로 '신우목장'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아미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신우목장은 목초지와 우유 가공 공장을 비롯해 모두 20만평에 이르는 상당히 큰 규모의 목장. 한우 350두와 젖소 250두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젖소들이 하루 생산하는 우유의 양이 무려 2.5~3에 이른다.

좁은 2차선 지방도를 지나 목장 입구에 들어서면 일순 푸른 초원이 펼쳐진다.

찾아간 날이 평일이었는데도 때마다 부산 YMCA 아가스포츠탈 어린이들이 목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목장 체험 프로그램은 갖 만든 신선한 우유 한잔과 함께 시작한다. 마른 목을 '골딱골딱' 넘어가는 우유의 시원함 뒤로 고소함이 천천히 퍼진다. 이제부터 이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 테다.

이러 트랙터를 개조해 만든 차량을 타고 목장 한바퀴를 돌았다. 목장길 따라 저 멀리 소떼가 보인다. 아이들이 외친다. "소다!" 인솔하시는 선생님이 묻는다. "우유가 나오는 소는 얼룩소일까요. 갈색소일까요?" "얼룩소요." "정말? 갈색소가 아니고?"

아이들은 자신이 없어진 듯 순간 조용해진다. 정적을 깨는 한마디. "갈색소는 아싸소고, 얼룩소가 암마소예요."

그랬다. 미국소고기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가한 어린이는 간혹 있을지 몰라도 정작 실제로 소를 본 적이 있는 아이는 없었다. 그런 아이들 눈 앞에 살아 움직이는 소가, 그림책 속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 어슬렁거리며 풀을 뜯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우유 만들어지는 과정 견학

트랙터에서 내리면 우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할 차례. 사실 최근 들어 사람이 직접 소젖을 짜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 착유기라 불리는 기계 앞에 소가 들어서면 기계는 자동으로 젖을 세척하고 기계에서 손 레이저는 젖꼭지를 찾는다.

위생상 유리창 너머로 그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1 넓은 목초지를 거니는 소떼 2 우유로 아이스크림 만들기 3 다같이 놀자! 목장 한바퀴.

에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 이후 소젖은 가공공장으로 옮겨져 여러 과정을 거쳐 병에 담겨지고 우리가 슈퍼에서 볼 수 있는 '우유'로 재탄생한다.

물론 이러저러한 것들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체험'이 아니라 '견학'일 것이다. 이제 슬슬 직접 소를 만나러 갈 시간이다. 넓은 목초지로 들어갔다. 목초지의 낮은 울타리 속 소들은 풀을 뜯거나 별레를 쫓거나 낮잠을 자며 제각각의 오후를 보내고 있다. 바로 눈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소떼를 보자 아이들이 무서움과 호기심이 겹쳐 숨소리가 커졌다.

소에게 직접 우유 먹이는 체험도

소떼만이라 아니다. 목초지는 클로버를 비롯해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풀꽃들로 이뤄진 자연 식물원.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내일 클로버라도 발견한다면 '이웃 소들'이라며 시큰둥하던 어른들도 금세 아이들의 눈높이로 돌아간다.

체험 프로그램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어린 소에게 직접 우유를 먹이는 시간. 소와의 스킨십을 할 수 없었던 목초지에서의 아쉬움을 어느새 사라진다. 미리 준비해 놓은 우유통을 아이들이 직접 소입에 물린다. 어린 소의 우유를 빼는 힘이 생각보다 세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선생님이 아이들을 소들에 태우기도 하고, 아이들 손을 소 입 속으로

집어넣기도 한다. 처음엔 놀라 뒷걸음질을 치던 아이들이 차츰 "저요! 저요!"를 외친다. '사랑은 터치(Love is touch)'란 어느 노랫말처럼 손끝으로 전해지는 어린 소의 진땀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프로그램은 치즈와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소젖이 우유로, 우유가 다시 다양한 유제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우선 11월까지 진행, 내년 3월 재개

초별로 만들어 놓은 치즈 덩어리를 제 손으로 늘이고 접기를 반복해 만든 스트링치즈를 먹어 볼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이 얼음을 녹이며 주위 열을 빼어가는 과학원리도 함께 배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진행되고 겨울철 잠시 중단한 후 내년 3월에 다시 재개된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4시 끝지며, 따로 점심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 문의 052-264-9332.

/부산일보=김종열 기자 bell10@busanilbo.com



'싱가폴 F1그랑프리' 현장을 가다

시속 350km 질주 '축제의 밤'

"싱가폴 도심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 삼아 시속 350km의 솜락하는 속도로 F1경주차가 빛살처럼 질주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특히 스탠드를 가득 채운 관람객 10여 만 명의 열띤 응원 모습을 보며 2010년 전남에서 개최될 코리아F1의 성공개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모터쇼를 관람하고 경주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 대회지원 윤진호 계장.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F1대회 사상 처음으로 야간레이스가 펼쳐진 '싱가폴 F1그랑프리'를 벤치마킹 차 참가하고 돌아온 윤진호(36)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 대회지원 계장은 9일, "F1경주차 22대가 쏟아내는 엄청난 배기음으로 귀가 멍멍해지면서도 가슴이 후련해지는 멋진 경험을 했다"며 "싱가폴 전체가 축제 분위기"라고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싱가폴의 금융과 상업 중심지인 마리나베이(Marina Bay) 주변 2~4차선 도로 5.6km를 서킷으로 활용, 밤 8시부터 11시까지 치러진 이번 F1대회는 야간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0만여 석의 관람석이 대회 개최 전에 매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보트, 머라이언파크 등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최고의 관광지들로 둘러싸인 변화가에서 열린데다, 대회기간 중 '싱가폴 축제'와 맥주축제, 모터쇼 등 다양한 볼거리 행사가 진행돼 싱가포르 전체가 밤낮없이 축제분위기로 들쭉였다.

윤 계장은 "4인 가족이 2~3일간 F1대회와 싱가포르 관광을 즐기려면 1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많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관람 스탠드를 채운 것을 보고 놀랐다"며 "오는 2010년 전남에서 열리는 F1대회도 '잘만하면 충분히 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계장은 그러나 F1대회가 열린 싱가포르 비교해 전남F1대회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고백했다. 대표적인 것이 숙박·관광시설이다.

그는 "싱가폴 F1서킷 주변에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7000여 개의 객실을 갖춘 초대형 특급 호텔이 15개 이상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휴양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하고 "전남 F1이 성공하기 위해서 숙박시설 확충을 비롯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F1 친환경 대회로 치러진다

전남도 'F3국제자동차대회' '친환경 자동차 대회'도 유치

2010 F1(포틀러인)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운영법인인 KAVO (Korea Auto Valley Operation)의 이사회가 15일 전남도청에서 지분 구조 개편 이후 처음 열려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친환경 자동차 경주대회'를 유치하기로 했다.

카보는 이날 이사회에서 현재 공사 중인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의 사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의 관중들을 끌어 모으기 용이한 F3 대회 등을 유치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및 전남의 이미지와 비슷한 미래

성장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경주대회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10년 F1 한국대회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F1 마케팅 활동을 위한 홍보전문대행사를 선정하고, F1 한국 드라이버 육성 등 제반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7월 지

분구조 개편 이후 F1 대회운영법인 주주인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SK 중흥을 끌어 모으기 용이한 F3 대회 등을 유치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및 전남의 이미지와 비슷한 미래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무안 - 향주(황산, 구화산) 직항 전세기

기동식 해외비행의 시작입니다

찬허 명실 황산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3박 4일 ₩ 620,000~ / 4박 5일 ₩ 680,000~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 3박 4일 향주-황산 항공구 직항 노선개항 기념

광주 MBC 문화방송 광주/전남 특 유명여행사 ☎ 문의 062-226-6070